

# 보건사회연구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김안나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근로자 생애주기적 접근

강지원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배하옥 | 김유경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장윤정 일본 노인입소시설의 유니트케어(unit care) 실시에 따른  
케어워커(careworker)의 소진과 케어업무 및 케어환경에 관한 연구

이필도 | 김미혜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구인회 | 손병돈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엄기욱 | 정재훈 |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연

박능후 | 배미원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최성은 과세표준소득의 세율탄력성과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정인석 | 이상직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김기량 | 김미경 | 한국 식품 미보장 현황 및 특성  
신영전

서 평 최은진 : 확대되는 의료서비스시장과 소비자의 선택

##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배 화 옥**  
(경상대학교)

**김 유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2007)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여성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5개의 배제영역을 선정한 후 측정하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의 모든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제하였을 때 성보다 장애가 빈곤을 더욱 예측하였다.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주요용어:** 여성장애인, 사회적 배제, 배제 영역, 빈곤

---

\* 교신저자: 배화옥, 경상대학교(hobae@gsnu.ac.kr)

■ 투고일: 2009. 7. 14

■ 수정일: 2009. 7. 28

■ 게재확정일: 2009. 9. 18

## I. 서론

시대적으로 빈곤문제는 항상 있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제도적 및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시작된 경제위기와 함께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빈곤문제가 대두되었다(윤성호, 2005). 또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 여성가구주의 수와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영미, 2008; 홍백의 · 김혜연, 2007).

여성장애인은 다른 어떤 인구집단 보다 더 열악한 소득수준과 빈곤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정책 및 제도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빈곤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자 동시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가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받게 된다(오혜경 · 김정해, 2000: 34). 여기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차별과 소외가 바로 빈곤에서 나타난다.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 차원을 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과 장애를 원인으로 인해 일반여성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교육, 취업과 같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배화옥 · 김성희, 2004: 74; 오혜경, 2006; Foley, Marrone, & Simon, 2002: 659). 교육, 고용과 같은 주요 사회영역으로부터의 배제는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빈곤상황으로 추락하는 단초가 된다. 빈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등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강화한다. 즉 여성장애인을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빈곤을 경험하는 인구집단으로 주목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최근 여성장애인의 연구동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혹은 삶의 질에 집중되어 있다(김성미 · 심인선, 2007; 유명화 · 엄미선,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Pearce, D. 1978)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간과되어 왔다(송다영, 2003; 윤홍식, 2002; Brady & Kall, 2008; Northrop, 1990).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여성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이중차별과 소득수준의 차이(강동욱, 2002), 여성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실태와 요인(배화옥 · 김성희, 2004; 오혜경, 2006)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대해 집중한 탐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분석하는데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재정리한 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정도,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회적 배제 개념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다룬 문헌을 고찰하여 보면 전통적으로 정의된 빈곤과 새로이 도입된 사회적 배제 사이에 몇 가지 뚜렷한 개념의 차이를 지적해 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배제 개념이 가지는 특성은 사회적 배제가 발생함에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혹은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심창학, 2001: 181). 더욱이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을 뿐만 아니라 요인들 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배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ilver, 1994: 536).

둘째, 전통적으로 빈곤 개념은 적절한 소득수준과 같이 정태적이며 결과적으로 해석되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주로 사회적 교류의 연대의 단절이나 집단의 주변화와 같이 관계적이고 과정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다(Atkinson & Davoudi, 2000: 434).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통합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과 결과로 정의되며 이 때문에 사회적 배제는 배제되어 가는 과정과 배제로 나타나는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역동적인 개념이 된다(Atkinson & Davoudi, 2000: 437-438).

셋째, 사회적 배제는 적절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통합의 결여, 권한의 결핍과 같은 관계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O'Brien & Penna, 2006: 85). 이 때문에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취업, 교육, 참여 등과 같이 사회의 제반 기회와 주요 결정 과정으로부터 격리되는 불이익의 결과로 이해된다(Silver, 1994: 533). 즉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라는 역학관계에서 빈곤현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넘어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이며 관계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Atkinson & Davoudi, 2000: 441).

## 2. 사회적 배제와 빈곤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그 결과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다(O'Brien & Penna, 2006: 85). 박병현 · 최선미(2001: 202-203)는 경제적 배제와 빈곤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경제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계층간 소득격차와 저소득계층의 장기실업화를 지적하였다. 윤성호(2005: 161-167) 또한 소유, 생산, 소비, 교육, 사회참여 차원의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노동빈민이 빈곤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됨을 밝혔다. Batavia & Beaulaurier(2001: 151)는 장애, 교육과 훈련의 결여, 사적 및 공적 지지의 부재, 물리적 주거환경, 그리고 차별이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경로를 거쳐 빈곤위험도를 상승시킴을 보여주었다.

한편 빈곤의 발생은 한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야기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대체로 영양결핍,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참여에서 배제를 겪는다(Atkinson & Davoudi, 2000: 435). Gallie et al(2003: 12-14)은 실업이 빈곤 가능성을 높이고, 다시 빈곤과 사회적 소외는 실업을 장기화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진영(2004: 260)은 빈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잃고,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 단절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상실하여 빈곤의 경험이 사회적 배제로 이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Dahl et al(2000: 231)은 이를 빈곤의 역동성이자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이라고 명명하였으며, Atkinson & Davoudi(2000: 441)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를 연쇄작용이라고 칭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배제로 발생한 빈곤은 다시 사회적 배제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

## 3.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을 사회적 배제 집단의 하나로 주목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여성가구주나 근로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박영미, 2008; 배미애, 2007; 송다영, 2003; Carr & Chen, 2004). 국내외 관련 연구를 고찰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동시에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영역을 교육, 고용, 건강, 가족, 사회참여의 5개로 축약한다(김안나, 2007: 368-374; 윤성호, 2005: 155-157; 이원호, 2006: 371-374; Atkinson & Davoudi, 2000: 440; Halleröd & Larsson, 2007: 19-20).

## 가. 교육

여성장애인은 아동기부터 교육기회와 교육서비스로부터 배제를 경험한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학령기 장애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변용찬 외, 2002: 58).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룰수록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취학률의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정규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변용찬 외, 2006: 468-469). 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정식 졸업증을 갖지 못한 채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2배에 가깝다고 보고되고 있다(Russell, 2003: 220).

## 나. 고용

여성장애인은 일반여성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고용의 배제를 경험한다.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50% 이상 취업확률이 낮았으며, 일반여성에 비해서도 비슷하게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으며(강동욱, 2002: 19-20), 고용의 배제는 곧장 임금의 차이로 직결된다(Baldwin & Johnson, 1995: 569).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같은 직종에서도 일반여성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지위와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증여성장애인과 경증여성장애인은 일반여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1000/1470과 1200/14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증남성장애인과 경증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1000/1292와 1000/1857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수준을 노출하고 있다(Batavia & Beaulaurie, 2001: 143-144; Foley, Marrone, & Simon, 2002: 661).

## 다. 가족

여성장애인은 혼인영역에서 배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구집단일 것이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유배우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24% 정도 낮아 사별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변용찬 외, 2006: 508). 특히 미혼비율은 20대에 85.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도 37.9%나 되었는데, 장애인들의 미혼 이유로 건강·장애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지 않아 장애 자체 또는 장애에 수반된 건강문제가 혼인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됨을 직시할 수 있다(변용찬 외, 2006: 508).

여성장애인은 혼인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확률이 낮다. 2002년도 415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혼과 재혼 비율은 각각 8.8%, 3.4%로 해혼 비율이 전체 12.4%를 차지하였다(오혜경·백은령, 2004: 24). 여성장애인의 혼인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배우자의 장애유무와 정도를 들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비율이 높는데다 장애정도가 중한 배우자를 맞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변용찬 외, 2006: 245). 여성장애인은 혼인 후 자신의 장애 외에도 배우자의 장애까지 수발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과 별거를 포함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이 해체로 이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다양한 유형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Nosek, et al., 2001: 183-184).

## 라. 건강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 자체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일반여성에 비해 보다 더 큰 심리사회적 건강문제의 위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여성은 일반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적어도 2배 이상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사회적 지지의 부족, 가정폭력은 우울증 정도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앞서 우울증을 증폭시키는 모든 요인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여성에 비해 3배 이상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osek & Hughes, 2003: 226-227; Parish, et al., 2008: 59).

여성장애인의 장애는 자존감, 자의식,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여성장애인의 낮은 자존감과 높은 사회적 소외감은 여성장애인의 건강추구행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osek, et al., 2003: 1742).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은 여성장애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사망률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osek & Hughes, 2003: 228).

## 마. 사회참여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는 사회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한계는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한을 불러오고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외부

와의 접촉과 관계망 형성을 좌절시킨다. 물리적 장애물, 사람들의 시선,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축소된 사회적 기회는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참여로부터, 지지와 친밀감의 대상으로부터, 고용기회로부터, 건강증진 기회로부터 단절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Nosek & Hughes, 2003: 229).

사회적 배제를 관계적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사회참여에 대한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가족, 친척, 친구 등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지지 못하여 개인적 지지망으로부터 단절되고 결국 연대감이 약화되어 사회문화적 배제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Dahl, Fløtten, & Lorentzen, 2008: 233). 특히 여성장애인은 낙인화되기 쉽고 열등하다고 인식되며, 존중받지 못하며,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들을 좌절시켜 사회적 관계를 형성치 못하고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사회문화적 배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Dahl, Fløtten, & Lorentzen, 2008: 234).

#### 4. 여성장애인의 빈곤

여성장애인이 빈곤에 처하는 비율은 단연히 높다. 미국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약 1/3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Foley, Marrone, & Simon, 2002: 659). 1992년 CPS 자료를 근거로 중증여성장애인은 빈곤에 처한 비율은 40.5%에 반해 중증남성장애인은 31%이며, 일반여성은 12.1%, 일반남성은 8.1%로 빈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Batavia & Beaulaurier, 2001: 142).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빈곤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성적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의 함수라는 것이다(Brady & Kall, 2008: 978). 즉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치에 접하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곧 빈곤과 상관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Brady & Kall, 2007: 978; Casper, McLanahan, & Garfinkel, 1994: 595). Carr & Chen(2004: 150)도 노동시장의 성 분화로 인하여 개발도상국 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배제와 빈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차이에서 저축이나 자산의 차이로, 근로활동과 노동권익으로부터 차례로 배제되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여성장애인의 빈곤이 다시 사회적 배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arish et al(2008: 59)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빈곤과 모자가정으로서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빈곤과 건강상태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섭취를 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영양결핍과 저체중 등을 야기하며 부족한 신체기

능과 일상생활활동, 다양한 만성질환을 보인다(Kirkpatrick and Tarasuk, 2007: 607; Vozoris and Tarasuk, 2002: 120). 소득불평등은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평등한 사회는 반드시 건강불평등을 노출시킨다(Mohan, 2002: 68). 앞서 여성장애인의 장애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하였다. 이때 국가적으로 의료보호제도 및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미흡할 경우 즉 빈곤할 경우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빈곤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 건강상태를 저해하기도 한다(Park, Turnbull, & Turnbull, 2002: 155). 여성장애인의 빈곤이 우울증 정도를 증폭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이 되고 있다(Nosek & Hughes, 2003: 226-227; Parish, et al., 2008: 59).

빈곤과 사회적 접촉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lleröd, Dahl, Fløtten, & Lorentzen, 2008: 241-242). 즉 빈곤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자원의 극단적인 부족은 사회적 관계, 개인적 교류와 사회적 참여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Dahl, Fløtten, & Lorentzen, 2008: 233-234). Hickey & Toit(2007: 6)는 만성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성을 조명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주류로부터의 주변화 과정으로 칭하였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일반여성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 높은 사회적 소외감, 낮은 자존감과 낮은 친밀감<sup>1)</sup>을 가지고 있었다(Nosek, et al., 2003: 1737).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는 교육과 고용 등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게 하고, 여성장애인의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는 관계인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

1) 부모, 배우자와 같은 매우 가까운 가족구성원과 친구, 이웃 등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정도 혹은 만족도로 측정하였다(Nosek et al., 2003: 1737).

### III. 방법론

#### 1. 자료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7년도 2차 한국복지패널 2차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수 총 10,835명 가운데 여성장애인은 235명으로 2.2%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49.1세로 가장 높았다.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외부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75.1%, 신체내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6.0%를 포함하여 신체장애가 81.1%로 많았고, 정신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11.0%, 장애유형을 알 수 없는 비등록장애인이 7.8%였다. 개별 장애유형 가운데 지체장애가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9.0%로 많았다. 장애등급은 1~6급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 2. 변수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영역과 빈곤 측정을 위하여, 각각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한국복지패널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배제 기준은 김안나(2007: 239)가 제시한 사회적 배제 지표의 정의와 윤성호(2005: 157)가 제시한 사회적 배제 변수의 산정법을 참고하였다. 학력은 교육기회 결여를, 고용형태는 근로활동 소외를, 그리고 혼인상태는 사적 지지체계의 유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신체적 건강 상태(일반건강)와 정신적 건강상태(우울증)는 건강의 열악성을, 자원봉사 참여와 인터넷사용은 사회참여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빈곤은 상대적 빈곤선인 가구원수에 따라 조정된 중위소득 60% 이하로 정하였다. 빈곤이 역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배제 지표로는 가족(가족생활 만족도), 건강(신체건강, 우울정도), 사회참여(자원봉사, 인터넷)를 다시 선정하였다(표 1).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교차분석을 위해서는  $\chi^2$ 검증을, 집단별 평균검증을 위해서는 ANOVA를 수행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

2) 만18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가족형성을 위한 결혼가능 연령이 만18세이기 때문이며, 만65세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무배우 비율이 지나친 편포를 보이기 때문이다.

에, 사회적 배제, 빈곤 간의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로지스틱회귀분석과 일반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1. 사회적 배제 영역별 지표와 배제기준

영역	배제정의	배제지표	측정	배제기준
교육	교육기회 결여	- 학력		- 중등교육 이하
근로	근로활동 소외	- 고용형태		- 임시직 · 일용직 · 자활사업/무급렘프 · 실직
가족	가족 지지체계 부재	- 혼인상태 - 가족생활 만족도	- 7점 척도	- 무배우(미혼 · 이혼 · 사별 · 별거) -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건강	건강 열악성	- 신체 건강상태 - 우울정도	- 5점 척도 - 4점 척도	- 나쁨, 매우 나쁨 - 종종, 대부분 우울함
사회참여	사회참여 결손	- 자원봉사 경험 - 인터넷 사용		- 한 적 없음 - 사용하지 않음
빈곤	소득빈곤	- 월평균소득		- 가구균등화지수 중위소득 60% 이하

## IV. 분석결과

### 1.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먼저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가 사회적 배제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 장애를 기준으로 일반남성, 일반여성, 장애남성, 장애여성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각 45.2%, 49.2%, 3.5%, 2.2%로 구성), 여성장애인을 연구집단으로 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성과 장애가 사회적 배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여성장애인은 비교집단에 비해 학력이 극히 낮았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57.3%로 일반여성의 3배였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하였다. 여성장애인은 고용영역에서도 비교집단에 비해 배제를 더 경험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일용직 · 임시직, 무급 · 실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과 같은 제도적인 고용형태로부터 가장 많이 배제되어 있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유배우 비율이 가장 낮았다. 미혼율은 낮아 여성장애인의 배제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이혼 · 별거와 사별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아 여성장애인의 가족해체를 엿볼 수 있다.

장애유무는 건강영역의 배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장애인과 함께 여성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아주 나쁘며, 일주일에 종종 혹은 대부분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19.5%에 달했다. 이와 함께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대체로 혹은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64.9%에 달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남성장애인을 제외하고 비교집단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일반여성에 비해 2배 정도로 높아 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은 자원봉사 경험여부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아주 조금 낮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표 2>에서 보듯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영역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어 동시에 혹은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생애주기에 따라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며, 전 단계의 영역이 다음 단계의 영역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적 배제가 결과적 산물이 아니라 역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혼인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혼인상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즉 사별일 경우 저학력이어서 중학교 이하 비율이 70.5%이고, 미혼일 경우 학력이 높아 대학 이상 비율이 60.3%였다( $\chi^2=50.16, <.001$ ). 또한 미혼의 37.5%는 상용직에 종사하며, 이혼·별거의 각각 33.3%는 상용직과 일용직·임시직에 종사하는 반면, 사별의 경우 일용직·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71.4%로 단연 높았고, 기혼의 23.9%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chi^2=17.08, <.05$ ). 여성장애인의 고용상태는 다시 가족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용·임시직이 가족생활만족도가 3.83으로 가장 낮고 우울증이 1.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29, <.05$ ). 또한 사회적 배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여성장애인에게 물을 수 없는 영역인 교육, 고용과 같은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즉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과 같은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결과 여성장애인은 거의 영구적인 약자 구도 속에 놓이게 된다. 이상과 같이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특성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대로 다차원적, 역동적, 관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단위: %)

배제영역		배제기준	일반남성	일반여성	장애남성	장애여성	전체	x2 or F
교육	학력	중등학교 이하	11.5	20.0	40.5	<b>57.3</b>	17.7	532.74***
		중등학교 이상	88.5	80.0	59.5	<b>42.7</b>	82.3	
고용	고용형태 <sup>b)</sup>	상용직	58.4	44.6	38.2	<b>15.8</b>	51.9	557.85***
		일용직·임시직	15.3	25.4	22.2	<b>30.3</b>	19.6	
		고용주·자영업	20.4	10.9	22.7	<b>19.7</b>	16.8	
		무급·실직	5.8	19.2	16.9	<b>34.2</b>	11.7	
가족	혼인상태	미혼	27.2	24.3	21.1	<b>16.7</b>	25.3	178.95***
		이혼·별거	3.8	4.2	7.0	<b>8.1</b>	4.2	
		사별	0.6	3.8	2.2	<b>8.5</b>	2.4	
		기혼	68.5	67.8	69.7	<b>66.7</b>	68.1	
	가족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보통	94.4	91.5	91.4	<b>86.8</b>	92.7	37.38***
		약간~매우 불만족	5.6	8.5	8.6	<b>13.2</b>	7.3	
건강	건강상태	매우 건강~보통	93.6	89.1	58.3	<b>43.2</b>	89.1	972.84***
		나쁨~매우 나쁨	6.4	10.9	41.7	<b>56.8</b>	10.9	
	우울정도	거의 없음~가끔	94.3	90.4	86.6	<b>80.6</b>	91.8	89.68***
		종종~대부분	5.7	9.6	13.4	<b>19.4</b>	8.2	
사회참여	자원봉사 경험	있음	12.5	13.0	8.0	<b>8.5</b>	12.5	10.14*
		없음	87.5	87.0	92.0	<b>91.5</b>	87.5	
	인터넷 사용	사용함	79.3	69.4	45.5	<b>35.7</b>	72.4	393.09***
		사용하지 않음	20.7	30.6	54.5	<b>64.3</b>	27.6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비경제활동인구 제외함.

## 2. 여성장애인의 빈곤

경상소득을 가구원수로 조정한 중위 60%선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측정하였을 때 본 조사에서 전체적인 빈곤수준은 14.8%이나 여성장애인의 빈곤수준은 45.5%로 일반남성 11.9%, 일반여성 14.3%, 장애남성 39.8%에 비해 가장 높았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이 때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 대 비빈곤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연령을 통제변수로 하였다(표 3).

첫 번째 모델에서 여성장애인은 빈곤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다. 준거집단인 일반남성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5.4배에 달했다. 통제변수인 연령의 경우 준거집단인 60대에 비해

여 모든 연령대가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두 번째 모델에서 사회적 배제 지표로 투입된 3개 변수는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빈곤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 이하이면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준거집단인 기혼에 모든 혼인상태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혼·별거와 사별은 빈곤할 확률이 기혼에 비해 각각 3.8배, 2.7배였다. 준거집단인 상용직에 비해 모든 고용형태가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통제변수인 연령대는 유의미성을 얻지 못하였다.

표 3. 빈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성·장애 모델		사회적 배제모델		통합모델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370		-3.441		-3.486		
연령집단 (60대 기준)	20대	-0.590***	0.554	-0.421	0.656	-0.200	0.819
	30대	-1.075***	0.341	-0.176	0.838	-0.069	0.934
	40대	-0.549***	0.578	0.048	1.049	0.124	1.132
	50대	-0.500***	0.607	-0.290*	0.749	-0.272	0.762
성·장애 (일반남성 기준)	장애여성	1.677***	5.352			0.829**	2.282
	장애남성	1.476***	4.376			0.975***	2.609
	일반여성	0.213***	1.237			-0.206*	0.818
교육수준 (고등 이상 기준)	중등 이하			0.826***	2.284	0.834***	2.131
혼인상태 (기혼 기준)	미혼			0.352**	1.421	0.242	1.162
	이혼·별거			1.317***	3.733	1.341***	3.888
	사별			0.992***	2.696	1.094***	2.887
고용형태 (상용직 기준)	무급·실업			2.340***	10.377	2.374***	10.848
	고용주·자영업			1.379***	3.970	1.348***	3.871
	일용직·임시직·자활			1.813***	6.129	1.829***	6.265
N	9899		6414		6414		
Chi-square	417.72***		887.84***		940.12***		
Cox and Snell R <sup>2</sup>	0.038		.119		.126		

\* p < .05 \*\* p < .01 \*\*\* p < .001

성·장애 집단, 사회적 배제 변수를 모두 투입한 통합모델에서 사회적 배제 변수의 회귀계수와 확률계수의 크기는 두 번째 모델과 큰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동일하였다. 다만 미혼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얻지 못하였다. 첫 번째 모델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배제 변수가 투입됨에 따라 장애집단(장애여성, 장애남성)의 회귀계수와 확률계수가 크게 작아진 것이다. 이는 성과 장애가 빈곤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 변수가 매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구집단은 사회적 배제를 통하여 빈곤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차이 하나는 일반여성의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즉 장애(장애여성, 장애남성)는 사회적 배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빈곤 가능성을 증가시키나 성(장애여성, 일반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배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더불어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더욱 빈곤해 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통제변수인 연령대는 유의미성을 얻지 못하였다.

### 3. 여성장애인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다음으로 빈곤이 역으로 사회적 배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앞서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성·장애, 사회적 배제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은 가족생활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신체건강상태와 우울정도를 심화시키며, 자원봉사 활동과 인터넷 사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빈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가족생활 만족도	신체건강	우울정도	자원봉사	인터넷 사용
		b	b	b	b	b
<b>빈곤</b>		<b>-0.398***</b>	<b>0.208***</b>	<b>0.207***</b>	<b>-0.496***</b>	<b>-0.706***</b>
연령대		-0.118***	0.152***	0.023*	-0.178***	1.021***
성·장애 (일반남성 기준)	장애여성	-0.423**	0.633***	0.171*	-0.768*	0.162
	장애남성	-0.045	0.521***	0.065	0.179	0.492**
	일반여성	-0.151***	0.129***	0.124***	-0.198*	0.460***
교육수준 (고등이상 기준)	중등 이하	0.258***	-0.236***	-0.060*	1.191***	1.983***
혼인상태 (기혼 기준)	미혼	-0.428***	0.025	0.094***	0.334**	-0.094
	이혼·별거	-0.531***	0.213***	0.283***	0.294	0.116
	사별	0.040	0.179**	0.119*	0.510	0.747**
고용형태 (상용직 기준)	무급·실업	-0.127*	0.108**	0.139***	0.437***	0.698***
	고용주·자영업	-0.125**	0.063*	0.102***	0.140	0.573***
	일용직·임시직·자활	-0.358***	0.125***	0.129***	0.744***	0.593***
R <sup>2</sup> 혹은 Pseudo R <sup>2</sup>		0.077	0.145	0.061	0.058	0.356
F값 혹은 $\chi^2$ 값		43.04***	98.72***	35.59***	221.34***	3058.66***

\* p<.05 \*\* p<.01 \*\*\* p<.001

주: 자원봉사 여부와 인터넷 사용은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여성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애와 사회적 배제를 같이 투입한 회귀모델에서 성·장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성 보다 장애로 인하여 더욱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은 다시 사회적 배제의 선정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장애인의 장애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이르게 하며, 빈곤은 다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V. 함의

이상에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정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자료는 표본조사자료로서 대표성의 장점이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의 배제의 정도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앞서 선정된 사회적 배제 지표 외에 다른 지표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 즉 적절한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 및 설문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하겠으나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 관련 후속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력, 고용상태, 혼인상태와 같은 사회적 배제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나 빈곤이 역으로 이들 사회적 배제 지표에 같은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대물림을 분석해냄으로써 이 둘의 상호인과성과 순환성을 보다 더 잘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변수의 측정 때문에 의도하였던 성과 장애가 사회적 배제를 거쳐 빈곤에 이르는 경로를 밝힐 수 있는 적절한 계량통계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sup>3)</sup>. 이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성과 장애,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3) 경로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투입된 모든 변수가 등간·비률척도가 아닌 이유로 유의미한 모형을 얻지 못하였음.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초점을 두고 계량분석을 시도한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료 분석결과가 이론적 논의에서 정리하였던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다차원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역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어 여성장애인이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혹은 중첩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빈곤 개념만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활용한 자료와 통계방법으로는 여성장애인이 배제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으나 사회적 통합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이 배제되는 경로를 밝히지 못하였다. 다만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영역이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며 동시에 전 단계의 사회적 배제 영역이 다음 단계의 영역과 상관성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배제가 역동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성과 장애는 빈곤에 직접적으로 또한 사회적 배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빈곤은 다시 되돌아 사회적 배제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 장애, 사회적 배제가 모두 빈곤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빈곤은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고 있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상호인과성과 순환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을 사회적 배제 가운데 경제적 배제라는 부분집합의 개념보다 사회적 배제를 지칭하는 대표성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인과성이 있고, 빈곤은 사회적 배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논의로부터 주요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여성장애인은 다른 어떤 비교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다는 점이다. 영역에 따라 여성장애인은 절반 이상이 혹은 대부분이 배제와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 혹은 빈곤정책을 고안해야 함을 제시한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과 장애임은 분명하나, 성과 대부분의 장애는 불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제극복정책과 빈곤해결정책도 사회적 배제 영역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낮은 교육수준이다. 여성장애인은 학령기 시점부터 교육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되어 낮은 교육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여성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회의 확대라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장애여아를 포함하는 장애아동이 통합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취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아동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특성상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빈곤은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이 근로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로부터 배제되는 주된 원인은 여성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앞서 지적된 낮은 교육수준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근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고용주 및 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덧붙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의 강화,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방식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특성을 감안하여 재택근로가 적합한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은 일반여성에 비해 또한 남성장애인에 비해 혼인이라는 제도에 진입하는데 또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 결과 가족이라는 사적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정도, 열악한 건강상태와 같이 건강영역에서도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을 형성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출산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육아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우선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동권과 접근권의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없애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이동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이동권 확보와 더불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 고용, 혼인·가족생활, 사회참여 등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

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아동기부터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과과정에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여성장애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 지도자 육성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배화옥은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아동학대, 아동빈곤, 여성장애인이며, 현재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k2rang@hanyang.ac.kr).

김유경은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가족복지, 아동, 정책 및 시설 평가이며 현재 한국가족위기, 다문화가족실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k2rang@hanyang.ac.kr).

## 참고문헌

- 강동욱(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연구. *사회복지정책*, 15, pp.7~32.
- 김기원(2001).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나눔의 집.
- 김성미, 심인선(2007).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연구*, 72(1), pp.73~107.
- 김안나(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pp.351~379.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pp.253~277.
- 박병현, 최선미(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pp.185~219.
- 박영미(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pp.11~41.
- 배미애(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1), pp.151~191.
- 배화옥, 김성희(200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창간호, pp.61~83.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정민아(2002).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pp.295~319.
- 심창학(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pp.178~208.
-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1, pp.27~74.
- 오혜경, 김정해(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 오혜경, 백은령(2004). 재가여성장애인의 모성관련 실태 및 자녀양육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6(2), pp.1~31.

- 유명화, 엄미선(2007).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사회적 지원. *재활복지*, 11(2), pp.131~157.
- 윤성호(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pp.149~176.
- 이원호(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 서울시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3), pp.367~379.
- 홍백의, 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pp.125~146.
- Atkinson, R. & Davoudi, S. (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pp.427~448.
- Batavia, A. I. & Beaulaurier, R. L. (2001).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sessing poverty risk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8(1), pp.139~162.
- Brady, D. & Kall, D. (2008). Nearly universal, but somewhat distinc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affluent Western democracies. *Social Science Research*, 37, pp.976~1007.
- Carr, M. & Chen, M. (2004). Globalization, social exclusion and gender.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3(1-2), pp.129~160.
- Casper, L. M. McLanahan, S. S. & Garfinkel, I.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4), pp.594~605.
- Dahl, E. Fløtten, T. & Lorentzen, T. (2008). Poverty dynamics and social exclusion: an analysis of Norwegian Panel Data. *Journal of Social Policy*, 37(2), pp.231-249.
- Foley, S. M., Marrone, J., & Simon, M. (2002). Cruise ships and kayaks: welfare and rehabilitation approach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povert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0, pp.659~680.
- Gallie, D. Paugam, S. & Jacobs, S. (2003). Unemployment,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Is there a vicious circle of social exclusion? *European Societies*, 5(1), pp.1~32.
- Halleröd, B. & Larsson, D. (2007). Poverty, welfare problems and social ex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pp.15~25.

- Hickey, S. & Toit, A. (2007). Adverse incorporation, social exclusion and chronic povert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81.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 Mohan, J. (2002). Geographics of welfare and social exclusion: dimension, consequences and metho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1), pp.65~75.
- Northrop, M. E.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1), pp.145~160.
- Nosek, M. A. Foley, C. C. Hughes, R. B. & Howland, C. A. (2001). Vulnerabilities for abuse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Sexuality and Disability*, 19(3), pp.177~189.
- Nosek, M. A., & Hughes, R. B. (2003). Psychological issues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Rehabilitation Counselling Bulletin*, 46(4), pp.224~233.
- Nosek, M. A., Hughes, R. B., Swedlund, N., Taylor, H. B., & Swank, P. (2003). Self-esteem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 pp.1737~1747.
- O'Brien, M. & Penna, S. (2008). Social exclusion in Europe: some conceptu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pp.84~92.
- Parish, S. L., Maga a, S., & Cassiman, S. A. (2008). It's just that much harder: multilayered hardship experiences of low-income moth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23(1), pp.51~65.
- Park, J., Turnbull, A. P., & Turnbull, H. R. (2002). Impacts of poverty on quality of lif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8(2), pp.151~170.
- Russell, P. (2003). Access and achievement or social exclusion? Are the government's policies working for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hildren and Society*, 17, pp.215~225.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r Review*, 133(5-6), pp.531~578.

#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Bae, Hwa-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im, Yu-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is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sex and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utilizing the second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7.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larified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led women. This study also sel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that disabled women might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education, employ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rate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mparative groups. That is, disabled women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more often than does any other socioeconomic group. Sex and disabili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exclusion. Further, three areas of social exclus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lso, dis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nd poverty significantly aff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Conclusivel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dynamically interrelated, affecting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isabled women's life cycle. This study suggested a few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to reduce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based on the findings.

---

Keywords : Disabled Women, Social Exclusion, Areas of Social Exclusion, Poverty

2009년 제29권 2호

#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인쇄일 | 200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09년 12월 31일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 02-380-8000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제작 | 예원기획

정가 | 5,000원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Anna Kim**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y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 Jiwon Kang** Korea's Policy on Single-parent Household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Bae, Hwa-ok | Kim, Yu-Kyung**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 Jang, Yun-Jeong** The Impact of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on Care Workers' Burnout,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s in Japan's Special Nursing Homes
- Lee Pil-Do | Kim Mi-Hye** A Study of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
- Ku, In-hoe | Shon, Byong-Don | Um, Ki-Wook | Jung, Jae-Hoon | Lee, Soo-You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Exa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Permanent Residents to Social Welfare Benefits
- Park, Neung Hoo | Bae, Mi Won**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 Yong-Gab Le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nd Their Less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 Seng-Eun Choi**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and Deadweight Loss
- In Suk Cheong | Sangjik Lee** A Study on an Incentive System for Reduc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 Kirang Kim | Mi Kyung Kim | Young-Jeon Shin** Household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

